

2023.07.22
- 08.06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평일(화-금) 8시
주말(토-일) 3시
월요일 쉼

아이 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제작 극단
파수꾼

작 스테파노 마시니
번역·드라마티크 황승경
연출 이은준
출연 차유경
김수현



기획

극단 파수꾼
두산아트센터

예매처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예매문의

070-8197-7950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일시 2023년 07월 22일(금) - 08월 06일(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시간 평일 20시, 주말 15시, 월요일 쉬

출연진 차유경 김수현

제작진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 강석란

공연기획 | 김오안 남운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 장혜정 유진영 박소연 김하은

교육기획 | 박찬중 정다운 이보라 **홍보마케팅** |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티켓 | 이한별 최시운 이희정 **사무** | 박세연

기술총괄 | 신승욱 **음향** | 류호성 **조준식** **조명** | 황동철 **왕은지**

무대 | 강현후 박소연 **하우즈** | 권지은 유지민

극단

파수꾼

작가 | 스테파노 마시니 (Stefano Massini)

번역·드라마티크 | 황승경 **연출** | 이은준

기획 | 이상숙

무대감독 | 손지영 **무대디자인** | 박은혜

조명디자인 | 신동진 **음악디자인** | 박민수 **영상디자인** | 윤민철 **의상디자인** | 김가빈

분장디자인 | 배운정 **홍보디자인** | 김정훈 **SNS컨텐츠디자인** | 정김소리

기록영상·기록사진 | 김원덕 **사진** | 양해성

영상·음향 오퍼레이터 | 김유림 **조명 오퍼레이터** | 이현직

제작 극단 파수꾼

기획 두산아트센터 극단 파수꾼

줄거리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우고 구조화해 이를 가능하게 한 나치 SS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과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 재판 심문 회의록, 절차, 독일 및 유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대화다.

아이히만은 겁 많고 소심하며 권력과 일중독에 빠진 흑수처다. 그저 자신의 승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뿐이다. 승진에서 다른 승진으로, 명성과 월급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아이히만에게 한나 아렌트는 끈질기게 질문한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거대한 조직 속의 관료로서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면서 항변한다. 아이히만은 폭력을 계산하고 디자인해서 '최종해결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한나에게 이야기한다. 끔찍한 학살을 실행시킨 아이히만이 괴물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한나는 놀란다.

결국 아이히만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게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데..

스테파노 마시니 (Stefano Massini)

이탈리아 극작가 스테파노 마시니는 피렌체 대학에서 고대문학을 전공하고

2001년 밀라노 Piccolo Teatro에서

Luca Ronconi의 조감독으로 극작 활동을 시작했다.

4년 만에 희곡 <허연 적막의 향기>로 '돈텔리상'을 수상하며

마시니는 **이탈리아 연극계의 샛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고대 문학에 전공한 마시니는 냉철한 시선으로 동시대 문제에

귀 기울이며 돌고 돌며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무대에 수려하게 펼친다.

그래서 마시니는 대중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보기 드문 현대 극작가다.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한 <리먼트릴로지>는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런던국립극장(2018) 뉴욕 브로드웨이(2019)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다.

명실상부 피란델로-다리오 포의 이탈리아 극작계의 계보를 이어가는 마시니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극작가로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서사와**

철학적인 메시지로 현대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대 사회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마시니는

이번에는 아이히만과 한나 아렌트를 소환해 현대사회의 모순을 회자시켜

인간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관객과 함께 숙고한다.

번역 · 드라마터그의 글

<암흑의 근원지는?>

작가 스테파노 마시니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에 남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영감을 받아 조사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를 극작했습니다.

연극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결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렌트의 대척점에 서서 '악의 평범성'을 저격합니다.

실제 한나 아렌트와 아돌프 아이히만은 피고 - 방청자로 법정 한 공간에 있었을 뿐,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의 자동차회사에서 일하는 이탈리아계 중년 남자가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가면 속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가능하도록 실행시킨 나치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작가 마시니는 예루살렘 심문 회의록, 절차, 독일 및 유대 역사, 아렌트의 에세이에서 조각들을 찾아 전례 없는 대화록을 완성합니다. 본 희곡은 학살을 계획하고 구조화시켜 구현하는 아이히만과 정치 철학적으로 이를 분석하는 아렌트의 인터뷰 형식입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된 대답을 되풀이하는 아이히만은 겁먹은 소심한 부르주아, 권력의 일 종독에 빠진 새벽형 흡수자, 승진희망자의 간절한 희망 구절 등에 자신을 빚대어 체계적으로 항변합니다.

마구간, 극장, 폭동, 승진, 안락의자, 명성, 돈으로 천천히 구성되는 '최종해결책'의 그림은 체계적인 거대한 조직입니다.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관객은 더욱 무섭습니다. 정치 철학자의 질문에 사로잡힌 그는 점점 속살을 드러냅니다.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남자가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나요? 모순적이고 피상적이며 서투른 무대 위 아이히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악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생각 없는 삶. 의심 않는 이유는 많습니다. 義, 忠, 正, 友, 孝...

중요한 것은 평범한 아이히만이 유일한 '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한 명분으로 무의식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반대에는 좌표찍어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메카니즘도 섬뜩한 악의 근원입니다.

극작가 마시니는 곧바로 정곡을 찌릅니다. 그는 90 여분을 간결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악의 진부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포가 항상 괴물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괴물은 우리의 존경할만한 이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어쨌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참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말할 때 괴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곳이 바로 암흑이 시작되는 아이히만의 심장입니다.

황 승 경

주요 인물과 사건



하인리히 힘러

Heinrich Himmler, 1900 ~ 1945

슈츠슈타펠(SS, 나치친위대) 수장
게슈타포(비밀 국가경찰) 수장
학살부대 아인자츠그루펜 설립
유대인 대학살의 최고책임자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군과 접촉 후 망명을 타진했으나, 영국군에게 체포된 후 포로수용소에 구금당하자 자살했다.

파울 요제프 괴벨스

Paul Joseph Goebbels, 1897 ~ 1945

대중 선동·프로파간다의 제왕
라인란트 나치즘의 선구자
하이델베르크 대학 문학박사

국회의원, 당 선전부장
국민계몽 선전장관
나치 독일 제2대 국가 수상

무조건적으로 히틀러의 사상을 신봉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총통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총리 관저의 대피소에서 여섯 아이들에게 독약 앰플을 삼키게 하고 아내 마그다와 함께 음독자살했다.



헤르만 괴링

Hermann Göring, 1893 ~ 1946

나치 돌격대(SA) 지휘관
게슈타포 창설
독일 국방군 공군제국원수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차 대전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 이후, 나치 독일 공군 특수부대 루프트바페를 창설했다.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당시 본인은 홀로코스트, 절멸수용소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군인의 전통적 사형집행방식인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결정되자, 청산가리를 복용해 옥중 자살했다. 그러나 괴링이 친위대 중장 하이드리히에게 유대인 최종 해결 방안 마련에 관한 실무전권을 부여한 서류가 발견되며 그의 끔찍한 홀로코스트 범죄 관련성도 입증되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Reinhard Heydrich, 1904~1942

'프라하의 도살자'
'피에 젖은 사형 집행인'

슈츠슈타펠(SS) 본부장, 게슈타포 2대 국장

부유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과 교류가 많았다. 그로 인해 학창시절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으나, 그는 유대인 절멸을 결정한 반제회의 주도하는 등 유대인을 탄압에 앞장섰다.

체코 총독 시절, 피격(유인원 작전)으로 인한 2차 감염 합병증(패혈증)으로 사망한다.

그의 암살사건을 다룬 영화로는 새벽의 7인(1975), 앤트로포이드(2016),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2017)이 있으며 나치의 승리를 다루는 가상소설에는 그가 히틀러를 계승한다는 설정이 많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냉혈한으로 실제와 같게 묘사된다.

* 나치 자체조사에서는 하이드리히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유대인과 재혼한 그의 할머니의 아버지 잉태 시점에 대해 의문을 가하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본 연극에서는 두 의견 모두 열어두고 있다.





오딜로 글로보크닉

Odilo Globocnik, 1904 ~ 1945

폴란드 루블린 총독부 슈츠슈타펠(SS) 경찰 사령관
홀로코스트의 대명사인 가스실 발명 및 설치
라인하르트 작전 사령관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에 추가로 강제 수용소 건설

1945년 5월 31일 영국군에 체포된 후 음독자살했다.

백장미단

한스 솔 (1943. 02. 22. 사형)

조피 솔 (1943. 02. 22. 사형)

크리스토프 프롭스트 (1943. 02. 22. 사형)

알렉산더 슈모렐 (1943. 07. 13. 사형)

쿠르트 후버[교수] (1943. 07. 13. 사형)

빌리 그라프 (1943. 10. 12. 사형)

나치의 판사 볼란트 프라이슬러에 의해 단심제로 치러진
공판에서 사형선고 후 몇 시간 만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나치에 대항하여 뮌헨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가 구성한 비폭력 저항 그룹이다.

1942년에 결성되어 1943년 2월까지
히틀러의 대량학살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며
나치에 대항하다가 여섯 번째 전단을 대학교에서
뿌리던 솔 남매가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일원 전체가 사형당했다.



뉘른베르크 법

1935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나치법령으로,
독일 내 유대인의 독일 국적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인의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는 한편,
유대인의 공무 담임권을 금지한 법.

반제회의

1942

1942년 1월 20일,
나치당과 독일 정부의 고위급 지도자 15명이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베를린의 부촌에 있는 반제라고 하는 호수 근처의 빌라에서
회의를 열었다.

독일 친위대 사령관 하인리히 힘러의 수석 부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유럽에서 골칫거리인 유대인에 대한 최종 해결"을 외무부 및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핵심적인 비 친위대 정부 리더들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이는 이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최종 해결"은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몰살하거나
인종 학살하기 위한 나치 암호였다. 나치는 그들의 대량 학살 정책을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숨기기 위해 애매모호한 용어인 "최종 해결"을 사용했다.

당시 회의의 전체 서류는 남아 있지 않고 참석자 명단과 각 국가별 유대인에
대한 인원 분석 부분만이 남아있다. 짐작하건대, 반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살해 방법, 제거 방법, 그리고 "멸종"에 대해서 토론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이 연극에서 그려진 것처럼
히틀러가 실제로 반제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Land	Behl
A. Altreich	131.000
Östmark	47.700
Deutsches Reich	420.000
Generalgouvernement	2.084.000
Baltische Staaten	400.000
Frankfurter Bohem und Mähren	74.200
Polenland - judenfrei	
Letland	3.500
Litauen	34.000
Belgien	43.000
Dänemark	1.800
Frankreich / Besetztes Gebiet	165.000
Frankreich / Unbesetztes Gebiet	700.000
Griechenland	52.000
Niederlande	160.000
Norwegen	1.500
B. Bulgarien	40.000
England	150.000
Finnland	2.500
Irland	4.000
Italien einsehl. Sardinien	50.000
Albanien	000
Kroatien	40.000
Portugal	3.000
Rumänien einsehl. Bessarabien	742.000
Schweden	8.000
Schweiz	10.000
Serbien	10.000
Spanien	90.000
Spanien	8.000
Tschechien (europ. Teil)	55.000
Ungarn	742.000
USA	5.000.000
Westeuropa zusammen	2.994.684
einsehl. Baltische Staaten	446.484
Zusammen über	11.000.000

번역 · 드라마티그 황승경

CAST & CHARACTER



한나 아렌트 役

차유경

<낙원상가><한 명>
<에쿠우스><궁전의 여인들>
<늙은 부부 이야기>
<유리동물원><언더스터디>
<다우트>
<친정엄마와 2박 3일>
<천덕구씨가 사는 법>
<휘가로 결혼> <파벽>
<신의 아그네스>
<리타 길들이기>
<나, 김수임> <갈매기>,
<오이디푸스> <아버지>
<나는 너다> 외



아돌프 아이히만 役

김수현

<햄릿>
<코스모스:여명의 하코다테>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스웨트>
<이광수의 꿈, 그리고 꽃>
<혈우><데스트랩>
<붉은 매미><언체인>
<킬로로지><진실X거짓>
<백치><오셀로>
<스테디레인><리차드 2세>
<피카소 훔치기>
<필로우맨><타바스코> 외

제작진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공연기획
전시기획
교육기획
홍보마케팅
티켓
사무
기술총괄
음향
조명
하우스
극단

극단 파수꾼

작
번역·드라마터그
연출
기획
무대감독
무대디자인
무대어시스턴트
조명디자인
조명어시스턴트
조명팀
음악디자인
영상디자인
영상프로그래머
의상디자인
분장디자인
홍보디자인
SNS콘텐츠디자인
기록영상·기록사진
사진
영상·음향 오퍼레이터
조명 오퍼레이터
무대제작
인쇄
제작
기획

강석란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장혜정 유진영 박소연 김하은
박찬종 정다운 이보라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이한별 최시윤 이희정
박세연
신승욱
류호성 조준식
황동철 왕은지
강현후 박소연
권지은 유지민

스테파노 마시니 (Stefano Massini)

황승경
이은준
이상숙
손지영
박은혜
정성윤
신동선
정우원
이한별 정하영 홍유진
박민수
윤민철
윤유리
김가빈
배윤정
김정훈
정김소리
김원덕
양해성
김유림
이현직
무대제작소 서울무대 (대표 이정 조)
복사광장(www.boksa7.com) 02-448-5612
극단 파수꾼
두산아트센터 극단 파수꾼

DAC Artist 강현주

연극
잘못된 성장의 사례
2023.9.5-9.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강현주
출연 공예지 류혜린 박인지 이지현 이휘중 황상경

연극
러브 앤 인포메이션
2023.10.17-1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카릴 처칠 Caryl Churchill
연출 진해정 번역 김수아 드라마터그 김민조
출연 권은혜 권정훈 성수연 이주협 황은후


DAC Artist 진해정

극단 파수꾼 차기작

[속살]

2023. 09. 07. (목) ~ 09. 17. (일)
선돌극장

작·연출 이은준
출연진 이원재
오순태
심원석
이상숙
이정주
민재원
김가빈
이기현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를 비롯한  공연 관람 티켓을 가져오시면

30%할인된 가격으로 <속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극단 파수꾼

온통 카메라 지천입니다.

동네방네 큰 길, 작은 길, 차 안, 집 안 까지 구석구석 없는 데 없습니다.

극단 파수꾼은

카메라 렌즈가 아닌, 인간의 심장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허위와 가식, 기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점차 소멸하여 가는

'인간을 향한 연민, 삶의 소중함, 사라져가고 있는 인간애'를 지키고자 합니다.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깨인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

극단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파수꾼 공연연보]

2014년 12월 4일 - 14일 '속살' <극단창단공연> / 연우 소극장

2015년 5월 1일 - 17일 '네발자전거' / 정보 소극장

2015년 7월 2일 - 19일 '속살' / 노을 소극장

2015년 11월 6일 - 22일 청년 전태일 '불씨'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2016년 2월 12일 - 28일 '택배 왔어요' / 노을 소극장

2016년 3월 5일 - 09일 '세일즈맨의 죽음' <화학작용2> / 예술공간 오르다

2016년 3월 29일 - 4월 10일 '도장 찍으세요' / 극장 동국

2016년 9월 8일 - 11일 '괴벨스 극장' <권리장전_검열각하> / 연우 소극장

2016년 9월 27일 - 10월 2일 '괴벨스 극장'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2017년 4월 11일 - 23일 '정의의 사람들' <무죽festival> / 극장 동국

2017년 6월 8일 - 11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말' <화학작용3>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2017년 8월 3일 - 13일 '괴벨스 극장' / 30스튜디오

2017년 9월 3일 - 10일 '인형의 집' <일본 SCOT 아시아 연출전> / 일본 토가예술촌

2017년 10월 2일 - 9일 '괴벨스 극장' <스토어 하우스 콜렉션> / 일본 우에노 스토어 하우스

2017년 10월 17일 '괴벨스 극장' <팸스초이스 선정작 > / 한양레파토리씨어터

2018년 3월 23일 - 4월 5일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신춘문예 단막극전>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8년 8월 8일 - 19일 '괴벨스 극장' <창작산실_올해의레파토리> / 예술공간 서울

2018년 11월 2일 - 11일 '울구(鰐區)_몽유도원' / 동숭무대 소극장

2018년 12월 21일 - 30일 '분노 하세요!' <창작산실_올해의 신작>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9년 8월 22일 - 9월 1일 '울구(鰐區)_몽유도원'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2019년 11월 12일 - 18일 청년 전태일 '불씨' <전태일기념관 하반기 초청공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올림피아

2019년 11월 21일 - 25일 '귀국선, 어느날' <타임리얼리티> / 코리아나 미술관

2020년 7월 9일 - 19일 청년 전태일 '불씨' / 나온씨어터

2020년 10월 8일 - 18일 '베이비박스' / 나온씨어터

2021년 6월 16일 - 27일 '7분(sette minuti)' / 아트원씨어터3관

2021년 11월 19일 - 28일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 마당세실극장

2022년 5월 19일 - 28일 '7분(sette minuti)' <제43회 서울연극제> / 아트원씨어터3관

2022년 10월 28일 - 11월 13일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 소극장 산울림

2023년 4월 7일 - 16일 '하얀 역병' / 아트원씨어터 3관

과수꾼

(031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5-1 5층, (종로6가)

E - MAIL watchman2014@naver.com

블 로 그 <http://blog.naver.com/watchman2014>

트 위 터 <http://twitter.com/watchman20141>

페 이 스 북 <http://facebook.com/watchman20141>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troupe_watchman